

## 국내 최초 공정무역 브랜드 '그루' 이미영 대표

# 마음이 지은 숲, 이야기가 담긴 자연을 누리다



**FAIRTRADE 그루**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수확한 커피를 마시거나, 중국 사람들이 재배한 차를 마신다. 우리는 일터로 나가기 전에 벌써 세계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인간을 담은 불교적인 시장경제, ‘공정무역(Fair Trade)’ 브랜드 1호점이 한국에 생겼다. 서울 종로 안국동에 등지를 틈 ‘그루(gru)’가 바로 그곳.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여성과 환경의 진보를 위해 고민해온 이미영 대표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한 공간이다.

“가난한 나라의 빈곤은 환경 문제와 동등하게 심각합니다. 환경이 파괴 될수록 더 가난해지고 여성의 고

통도 가중돼요. 가족은 해체되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가 경제 구조의 부조리한 착취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세계의 가난을 치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것은 14년 전 제3세계 환경운동가들과 교류하고 부터다. 나와 연결된 일상의 모든 것이 상충상입(相卽相入)한 화엄의 형태임을 확신한 것이다.

“시아를 넓히어야 해요. 소비자를 넘어 지구시민을 대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시민운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결론 내리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보려 했죠. 정책적으로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틈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했습니다.”

결집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한 그의 실천이 가난한 나라의 장인들에게 서서히 변화를 안겨주었다. 그의 제안은 희망의 가능성이 되고 이상은 현실

이 됐다. 더불어 여성의 손이 일궈낸 성공 사례를 찾아 공정무역 생산자의 70%를 차지하게 됐고 자립적인 유기농 순환 농법을 비롯해 작지만 응용 가능한 대안운동을 펼치면서 브랜드 ‘그루’가 탄생했다.

나무를 세는 단위인 ‘그루’를 통해 마음의 숲을 가꾸는 그는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듯 한 사람의 손길이 나무가 되어 모두가 하나의 숲이 되길 바란다. 한국의 경우 두레생활에서 울러보요 일, 아름다운가게에서 커피와 홍차, YMCA에서 동티모르에서 생산된 커피를 제공받고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공동체 조합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발 유통한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든 이의 이야기도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물건은 단순 소비재가 아닙니다. 공정 무역을 통해 일주일에 50시간 양탄자를 짜던 소녀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숲의 파괴로 멸종 위기에 몰린 생명들도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죠.”

편향된 부가 아닌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에게 노동의 대가가 정당한 지불되는 희망의 불교 경제. 공정무역은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운동이며 브랜드 ‘그루’는 사회적 기업운동이다.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을 기반 한 새로운 무역관계는 보다 인간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루는 시민주식회사라는 신개념 모델로 80여 명의 소액주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FairTradeKorea)는 주주 모두가 주인공이죠.”

(02)739-7944  
www.ecofairtrade.co.kr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그루” 매장.



네팔리 버자로 생산자.



이미영

## 통일신라 불상 1200년만의 환향

###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展

통일신라 불교미술에 담긴 생명의 울림이 메아리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전시를 위해 고국에 환향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12월 16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기획 특별전을 개최한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오구라 다케노스케(1870~1964) 소장품이 수집해 반출한 1100여점의 문화재 중 통일신라 불상 5점과 일본 중요문화재 5점을 포함한 총 17점이 전시된다. 또한 경주 부산 등지의 국보급 통일신라 조각과 중국 일본의 것을 모두 모아 동남아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망라한 한국 최초 비교전으로 승결과 깃줄이 통하는 통일신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상적인 인간 전형으로 탐미한다.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展은 양공(良工)의 솜씨가 빛어 낸 우람한 석상의 위용이 살아있는 법열로 종만한 특별 전시다. 통일신라 조각의 정수를 보여주는 200여 점의 유물 가운데 백률사 금동불입상을 비롯한 국보 10점, 감은사 금동사리함 등 보물 9점이 포함됐다. 또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과 협력해 제작된 입체 석굴암도 올 겨울 온가족이 체험 가능한 불복벽스터 불교여행이다.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독창성은 한국의 고전미를 확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각은 사실성과 초월성 그리고 종교성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고대 문화유산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전시는 크게 ‘전환기의 모색’, ‘새로운 지평을 열다’, ‘완성과 변주’, ‘공적의 세계, 석탑 부조’, ‘무덤의 수호자들, 능묘조각’, ‘신라 예술혼의 절정, 석굴



8세기 일본 나라시대 ‘동조약사불좌상’ 일본 나라박물관 소장.

암’의 여섯 주제로 구성됐다. 이밖에 국내외 저명한 학자를 초빙해 통일신라 조각과 동시대 중국, 일본의 조각사를 포함한 공개 강연회도 연다. (02)2077-9000 가연숙 기자

## ‘밀초’에서 배운 고요한 느낌

### 소선공방 양초공예가 지용 스님

“초 조각 공예를 하다보면 칼의 방향과 깊이 따라 마음 쓰임이 보입니다.”

연말이 되면 가족 모임과 선물용으로 각광받는 ‘초’는 불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육법공양물 가운데 지혜 광명과 하심(下心) 정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양초 공예가 지용 스님(소선양초공예협회 회장)은 그러한 발원의 의미가 담긴 초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소선공방(www.candlegallery.co.kr)’ 명패를 달고 수행 삼아 정성껏 만들고 있다. 법당을 겸한 8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는 아기자기한 수제 초들이 전시 판매되고 조각 공예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도 수업중이다.

“1990년 공주 마곡사에서 출가해 동학사 강원을 졸업한 후 동양화를 대학에서 전공하며 불화를 그렸습니다. 어느 날 조

각 초를 보고 반해 부처님 전에 흰 초가 아닌 나뭇의 도인으로 장엄된 초를 공양물로 올리고 싶다 발원한 것이 지금의 소선공방이 됐지요.”

어려서부터 절집에서 성장해온 스님은 폐 초가 항상 아까웠다. 공양물로 올렸다가 남은 초를 다시 녹여 크레파스를 넣고 색 초를 만들며 놀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스님은 수제 양초와 조각 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아로마향초는 밀납에 콩 추출물과 천연연약 그리고 천연오일을 넣어 효과가 있는데 사실 파라핀과 아로마오일은 희석이 안돼요. 기존의 아로마향초는 거의 화학적 오일을 쓴 것으로 봐야겠죠. 조각 초 또한 천연파라핀을 사용하면 물러서 일반 화학파라핀을 써야 해요. 아로마 효과가

있는 조각 초는 사실 나오기 힘들죠.”

스님에게 양초공예를 배우는 수강생들도 처음에는 절 아닌 곳에 머무는 스님이 낯설었다. 그러나 일상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불안할 때 스님의 지도로 한 생각에 머물며 양초 공예를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부드러운 초의 재질 때문에 한 순간에 칼날이 꽃잎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도 향상됐다.

양초에 색을 칠하고 기법을 이용해 초를 만들지만 심지를 꽂아 태워야만 초의 진정성이 발휘된다고 말하는 스님. 도심 속 작은 공방에서 좀 더 예쁜 초를 만들어서 감사와 사랑의 자비를 나누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766-0269 가연숙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열린마음상담원**

선남선녀 인연맺기 대성사

# 열린마음 대전 포교원 개원

**열린마음상담원**

교육상담  
선남선녀 성격분석  
결혼매칭 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행복상담

**한국 다증지능 적성 평가원**

나의 인생세계  
지능의 우선순위 파악  
성격의 유형파악  
적성에 맞는 직업파악  
학습방향제시  
결혼성격분석

**다증지능 적성 평가만?**

미국하버드대학 교육심리학 박사 하워드 가드너의 다증지능 이론과 피문학(지문학)이 접목된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적성검사 방법입니다.

☎ 042\_223\_8214

해설스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 아르센아파트 상가 1층 (후문 옆)

대성사 홈페이지 <http://dss.or.kr> | 다음카페 옥천대성사 따뜻한 만남 인연맺기 <http://cafe.daum.net/dasungsa>

화제의 신간

## 핵심래정 택일지

365일 매일 한 장씩 읽!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뽑아놓은 래정비법!

4×6배판/갈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특수 조서법 공개!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ভাল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서에 말이 붙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서법 공개!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입금계좌(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H.P : 010-3813-4443 H.P : 010-3813-4443